

◇우리교회 성구◇

나의 힘이 되신 여
호와여 내가 주를 사
람하나이다

(시편 18:1)

중 현

THE CHUNGHYEON TIMES

1973년 4월 22일 발행

발행인 김 창 인

편집인 윤 중 순

서울중구충무로 5가36

대한 예수교 장로회

중 현 교 회

(27) 9937 • 9738

□ 부활절 메시지 □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할 자

당회장 김 창 인 목사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만유의 대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억만 죄인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형물에 못박히시는 사형집행을 당하시사 죽으신 지 사흘만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선으로 악을 이기신 승리의 부활입니다. 진리로 거짓을 이기신 거룩한 승리의 부활이며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신 영원한 승리의 부활입니다. 또한 악마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우주적 승리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천하에 자랑되게 하신 영광의 승리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도 성모 마리아도 아니며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도였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꿈에도 잊지 않고 감사의 생활을 한 성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는 자리에까지 따라가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장례하는 일에 끝까지 참석한 후에 곧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사흘째되는 새벽에 달려간 정성의 여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중현의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이미 받은 바 은혜를 잊지 마시고 감사생활을 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죽음까지라도 각오하고 끝까지 따릅니다. 내게 있는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어 선한 일에 봉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들도 부활하옵신 예수님을 모시고 승리의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설 교 □

부 활 의 신 앙

성경 / 고전 15 : 12~22

천 성 덕 목사

기독교의 특성을 혹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교훈에 있다고 하며 혹자는 예수님의 교훈뿐만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을 강조하며 사랑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 교훈에 있어서나 사랑면에서 어떤 종교보다 뛰어난 것이 틀림없지만 보다 깊은 면에서 부활을 소유함에 그 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신 사도신경의 신앙고백과도 같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성육신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생애 중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탄생하신과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의 낮아지셨던 몸이 크게 존귀하게 되심이니 부활이야말로 생애의 큰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든 생애는 모두 성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표적 보여 주기를 간청할 때에 요나의 표적을 들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 제삼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 주신 대로 부활하시사 성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십리 가운데 나타난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재림을 믿게 되며 부활을 통한 주님의 은혜에 찬송하게 되며 아울러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로써 성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재림도 성경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장사지낸 바 되어, 사망의 그늘 아래 계시던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하셨고 또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의 개가이며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신 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 : 20)고 말씀하신 것은 곧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와 지금 살아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할 수 있도록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석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육원 몸이 영광의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게 됩니다(고전 15 : 42-43).

3.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에 굳게 서야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나 다 같은 육체를 소유하고 있지만 성도가 죽음에 직면하여도 생명력이 넘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전 15 : 58)고 한 것처럼 성도의 부활을 확신할 때 어떤 핍박이나 환난도 능히 견디어 내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친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패기에 넘쳤고 또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그 자격을 “우리보다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행 1 : 22)으로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고전 15 : 14)라고 부활의 중요성을 증거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오심이며,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속하셨고, 대속하신 성도를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려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영광이요 승리의 원천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 : 25-26).

<본교회 부목사·대학부 지도>

인도네시아에서 온 소식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서만수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본교의 해외복음선교회.....◇
 ◇.....앞으로 3월 보고서를 보내왔다. 보고서를 받쳐 기재한다. <전집부 붙임>◇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인도네시아 복음화 운동에 참여하여 귀중한 물질과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 함께 이 사업에 협력하시는 성도들 위에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다음과 같이 3월 중 여러분의 사업을 보고하나이다.

보고사항

1) 한글전도지 도착

보르네오섬의 팔리만탄에 있는 4개의 산림, 건설업체를 위한 한글 전도지(쪽복음)를 지난 10일 수령하였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서 주문한 성경, 찬송 44권도 수령하였음을 감사하며 팔리만탄의 귀역자들은 추석절 전후로 순회코자 합니다.

2) 성례식 거행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선교부 산하의 자카르타 한국인 연합교회에서 25일 성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72년 7월 2일 본교회 설립 이래 이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신앙의 성장으로 오랜 이교의 속박과 방황으로부터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이들중에 세례 1명, 학습 2명, 유아세례 1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3) 정글의 형제를 위한 구호금품

어두운 정글의 성도들을 위해 본 교회에서는 의료 128점을 비롯 추수감사절 헌금과 적립된 7만 루피아(약 170불)를 보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헌금은 성경과 찬송을 구입하여 정글교회에 기증하기로 한 바, 현재 정글교회 성도들은 설교자 외에는 성경과 찬송이 없고 듣기란 하며 찬송은 한줄씩 따라 불러야 되는 형편입니다.

4) 인도네시아인 유학의 건

그동안 물색 중이던 총신 유학 후보생 2명과 목회 훈련차 파송한 목사 1명에 대하여는 바루

옥타비아누스 목사 교단으로부터 1974년도에 후보자를 할당해 달라는 청원이 있으며, 스 마랑 소재 이사알마시 교단으로부터는 현재 물색 중이라는 소식만을 전해 왔으며 왕복 여비가 문제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5) 한인교회 회집 및 헌금현황

4일-15명, 헌금 4,765. 11일-22명, 헌금 6,585. 18일-22명, 헌금 5,825. 25일-20명, 헌금 8,000.

청원사항

1) 제 3차 정글작전 위하여

금 31일 새벽 6시 비행기로 제 3차 정글작전차 마카로 향발하였습니다. 3주간 계속 집회 후 해안촌락을 따라 올라가며 집회를 열고 자바섬에 이민온 화전민 촌락을 둘러 집회도 하며 구호품 나눠줄 예정, 이 일 위하여 더욱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한인교회 위하여

자카르타 한국인 연합교회의 계속적인 성장과 특히 이번 세례자와 학습자를 위하여 또 한인교인들 위한 사역자 한 사람 중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현지 본부를 위하여

한 사람이 장글을 순회하면 한 사람은 자카르타에 남아 한인교회 돌보며 본부와 현지 중계 및 타 교단과 외교적 유대를 계속해야 하는데 이 막중한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4) 선교관 재계약 위하여

오는 6월 27일로 끝나는 선교관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100불 내외의 거처를 새로 찾아야 할 형편이므로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교사 서만수

(불기둥)

삭개오는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뵈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사는 마을에 예수께서 지나시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틈에 서 제신 예수님을 난장이인 그로서는 바라다볼 수조차 없지 않은가(눅 19:1-10). 만약에 옆에 뽕나무만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엉엉 놓쳐버렸을지도 모른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장애물이 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삭

개오를 방해한 그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따른 사실로서 성회에 출입하는 「교인들」이라고 보면 「삭개오」는 곧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제 그 삭개오(교회에 처음 온 이)가 키 큰 사람들(기성 교우들) 때문에 불행히 그 뽕나무도 없어서 섭섭히 돌아갔다고 하자.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나(우리 중의 누구)도 끼워 있지 않는지? 나의 언행십자가 바르지 못할 때, 외식과 불법이 내게서 발견될 때, 오늘의 삭개오는 교회에 왔다가도 낙담해버릴는지 모른다.

<조>

< 신앙 간증 >

눈물로 적 진 부활절

이 정 애 집사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부활절이면 항상 부르는 찬송이다. 어려서는 부활절이 연극을 하니 좋았고 청년시절은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리니 좋았는데 장년이 된 지금은 진정 부활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결심이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더욱 다져져진다.

어린시절을 지나 청년이 되면서 교회일이라면 대사에 열심인 나를 보고 사람들은 믿음의 좋다고 하였다. 불신 가정에서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그 때의 열심은 그저 열심이었지 지금처럼 맡겨진 일이 너무도 귀중하고 감사하여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에서 하는 일이 아니었다. 어린 주교시절부터 애들의 엄마가 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내게 바칠 수 있는 음성을 주셔서 비록 적은

힘이나 성가대에 봉사하게 하셨다. 사람으로 인해 생긴 열심은 곧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열심은 어떠한 환경에도 변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1966년 3월 첫주에 필동으로 이사와서 처음 충현교회에 등록하였다. 너무 큰 교회라서 서먹서먹하였고 시골교회서 느낄 수 있는 따사로운을 찾지 못하면서 2부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 예배에서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였고 그 후에 있는 부흥회와 성찬식에 참여하였을 때 실로 오랫동안 맛보는 감동을 받았다.

가시관에 찢기시어 핏방울이 흘러내리는 창백한 그 얼굴을 생각하면 마음아파 머리를 들 수 없었으며 호느낌의 참회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오는 것은 찬송과 감사뿐이요 흐르는 눈물 속에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는 찬송을 소리 높여 불렀다.

“이 생명이 다하도록 내게 주신 선물인 이 음성을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속 깊이 심기워진 체현속에 소망은 빛 것을 바라보게 되고 주신 사명에 더욱 더 충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여성성가대원>

누구나 그렇겠지만 분주한 생활로 내 일을 준비하기에 급급하다 보니, 너무나 쫓기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구역의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내용을 발표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나 어쩔 수 없는 사정하에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미아리지역은 단일구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번두리지역의 발전으로 인하여 월곡구역이 분가되어 독립하였고 그 후에 또 정농구역이 분가 독립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구역이나 분가시키고 난 미아리구역은 과대지출현상으로 오늘의 현황은 볼 모양 없이 되었습니다. 총세대수 18세대 세례교인 21명, 학습교인 5명, 유아세례교인 4명, 원임교인 12명, 제 42명(남 20명, 여 22명)으로 전가족 출석 세대수는 8세대에 불과합니다.

저희 구역예배의 특징은 세 구역이 합동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이 부인들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도 참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동반운동 등을 전개

□ 구역 소개 □

미 아 리 구 역

안 익 태 집사

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끌어들이면 구역친목은 물론 가족친목도 될 것 같아 실천해 보고 싶은 일 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아리, 월곡, 정농 구역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권찬님들에게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며 한편 죄송한 것은 그 혼한 음식대접도 한번 해드리지 못한 것을 공개사과드립니다. 훌륭하신 분이 구역장이 되셨더라면 오늘의 미아리구역은 훨씬 달라졌을 것을 생각하니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언제든지 오실 이(훌륭하고 자격 있는 구역장)가 오시면 그 때에는 자격 없는 저의 구역장 대리직도 끝나게 될 줄 압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충현교회 온 성도들에게 같이 계시서 늘 승리생활 하시기를 빕니다.

□ 논 단 □

예 정 론 의 한국적 토착화를 막자

노 건 집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믿는다. 이 예정을 우리나라의 현 장로교인들이 바로 이해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예배에 늦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이야!” 하는 식의 말을 흔히 듣게 됨이 그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우리민족은 기원전부터 무속신앙(巫俗信仰)을 이어 왔고 역사적으로는 내정의 혼란과 외세의 강압에 일반 서민들이 부당한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무력한 그들은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한 운명으로 체념하고 이에 순응하여 끈덕지게 삶을 이어나가는 서글픈 슬기를 배워온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에 뿌리박힌 운명론적 사상은 우리에게 전래된 문화 전반의 본질을 운명적으로 변질시키는 무서운 힘을 발휘했다. 이조의 유학(儒學)만 해도 중국의 수많은 유교학과 중에 유독 숙명론적으로 변질된 정주학(程朱學)만이 이 땅에서 독판을 치게 된 사상적 배경도 그 원인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기독교 진리를 또한 변질시켜 나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내가 예배에 늦게 참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간단한 농담 한마디 속에 우리는 정통적 기독교 예정론의 본질을 변질시켜 버리는 무서운 폭탄적 선언을 발견할 수 있다. 칼빈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을 신학적 용어로 표시시킨 이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 예정론은 치열한 신학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칼빈의 후예들은 이 예정론을 인간 이성적 이해 범주를 초월해 하나님 편에서 이해함으로써 모든 난제를 해결하였으니 즉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이다.

우리가 예정을 받았는지의 여부는 우리 일상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냐의 여부로 그 실증을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따라서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처서(자아부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과 온 성품을 바치는 거룩하리만큼 청결한 생활, 애처로우만큼 생산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역사상 가장 바람직한 인간형을 형성」시켰던 것이다.

이에 대해 비처(Henry Ward Beecher)는 도덕적 우월성과 순결의 이념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데는 칼빈주의와 대응한 체계는 없다. 세계

가 있는 이래 이와 같이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동기를 인간에게 주고 이와 같이 무섭고 큰 대포로 죄악의 진을 일소하고 토대를 구축하는 체계는 없었다.”고 말했다. 즉 예정론은 자아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개인의 죄와 욕망을 불사르고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완수에 박차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에 방해되는 모든 세력을 과감히 잘라내는 예리한 칼날이다. 또한 불의와 싸워 신앙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신적(神의) 보장인 동시에 바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정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결한 생활을 했고, 찬연한 근대문화를 이루었으니 이들의 문화를 죄감의 문화(Culture of Crime)라고 혹자는 말하는 바 이는 예정론자들의 죄에 대해 지나친 민감을 지적하는 소위다. 이와 같은 예정론의 본래 의미와는 달리 한국화되어 가고 있는 예정론이 홀로 달리는 방향은 180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얼마 전 필자는 우리 장로교 군목 중에 전군 신자화운동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예정인데 인간적 노력으로 전군 신자화운동이 가능하냐는 것이 그 이유였다.

기독교는 십자가로 간단히 상징된다. 즉 자기를 죽이는 종교인 것이다. 어떤 모양으로 생활하는 자신의 개인적 욕구와 탐심을 정당화시키고 스스로 범한 과오를 합리화 시킨다면 이는 곧 반기독교일 수밖에 없다. 특히 이것이 기독교에 흡사한 모습으로 나타날수록 반기독교로서의 강도가 더욱 커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기 변명이나 무사 안일의 사상적 근거가 되는 예정, 나아가 살인 강도행위의 합리화로 비약된 예정론까지 이른다면 이 어찌 망국설(亡國說)로까지 비약된다 하지 않으랴! 제때의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운명론을 참 빛이 되는 기독교의 진리가 이를 박멸하여야겠거늘 오히려 적극적이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우리의 예정론이 운명론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가슴을 치며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종현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바른 예정론의 이해로 정상적인 예정론의 꽃을 우리의 생활로 피워 참된 예정론의 실증을 오늘 이 땅에 밝히 보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후임의 이 땅에는 올바른 재화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신앙의 선구자들이 됩시다.

<구역 소개>

○○○○○○○

장 총 2 구역

○○○○○○○

서 일 영 집사

먼저 우리 구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역은 장총 2가와 목정동 일부로 교회에서 바라보이는 가까운 곳으로 구역 현황은 등록 세대수 46세대로 세례입교 76명, 유아세례 25명, 학습 19명, 원입교 17명으로 모두 137명이 등록되었습니다. 이중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은 천성덕 목사님, 홍충만 전도사님, 구역담당이신 신계택 장로님과 김한홍, 이태규 장로님을 비롯 권사 1명, 남집사 4명, 여집사 11명입니다. 흡사 작은 교회를 이룬 듯하여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이사갔다가도 곧 다시 오시기도 하며 축복 받은 구역이라고도 합니다.

구역예배에는 15~20명 정도 모이며 작년부터 연말에는 개근상과 정근상을 줍니다. 우리 구역에는 숨은 일꾼들이 많은데 식구들의 박해에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노방전도를 하시는 할머니, 매주 심방하시는 권찰님들에게 점심이나 다과를 대접하시는 가정, 새벽기도회와 철야

기도회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일꾼들, 이 모든 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구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일년 내내 추우나 더우나 눈비가 몰아쳐도 주님의 십자가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각 가정을 문안할 때에 때로는 냉대와 박대를 받으면서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시는 권찰님들의 숨은 봉사야말로 사명감에 불타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헌신적 봉사인 줄 압니다. 광희동에 사시는 백성기 권사님은 매주 금요일마다 권찰님들과 같이 박기련 집사님 댁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심방에 나서는데 고령에다 신병으로 숨이 차서 걸기에 몹시 불편하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46세대나 되는 모든 가정을 방문합니다.

우리 구역은 남산의 비탈길인데다 거의 모두가 좁은 골목에 높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는 험한 길입니다. 이러한 길을 백 권사님은 이 구석 저 구석 주의 사랑하는 가정을 방문하시고 혹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찾아가시어 위로의 예배를 드리며 권면과 격려로 돌아보는 일을 3년째 수고하셔도 싫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책임을 다하시는 권사님의 신앙생활에 깊은 감사와 존경심에 머리숙여집니다.

끝으로 본 교회의 모든 권찰님과 온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영적 생활의 승리자로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구역장>

남녀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결혼을 하여 새 가정을 꾸민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잘 해 나가는 데는 「결혼」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생활」에 의미가 있다고 느껴진다. 상대의 인물이나 직위가 항상 새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혼 후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해소 방법이 없어 자가당착의 실의에 빠지는 경우를 자주 보아 왔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생활이 하나님께서 작지워주신 처음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 결혼생활 자체에 환멸을 느낄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무난하게 넘기려면 결혼생활에 꼭 따라야 할 일들이 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대화」이다. 말을 함으로써 의사소통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평소의 생활에서 대화를 좀 더 품위있게 그리고 차원이 다른 대화의 과정을 지속해야 할 줄 안다. 답답하다는 것이 대화의 폐쇄를 의미한다면 이를 가름할 유통과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육체적인 것이 최대의 이상이 아니고 정신적인 마무리가 이상적인 결과가 된다면 폭넓게 안정성 있고 믿음성있는 대화의 유도에 심사숙고해야 할 줄 안다. 하루 생활이 피곤하고 지루하고 바쁘

□생활수필□

대화가 있는 결혼생활

김 차 생 집사

게 지나가는 현대 속의 결혼생활이 빛나간 화살처럼 한 몸 이룬 의미를 상실한다면 이처럼 허무한 것도 없을 것이다.

결혼 초년생인지라 경험적인 애기나 설계를 들려주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부부생활이 개인의 욕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가정, 교회, 사회와 국가에 조그만 가치라도 기여하며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참된 결혼생활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것을 포괄하고 대변하는 「대화」의 과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새삼스러이 숙고하여야 하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전제로 한 참된 대화 속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은 성숙할 것이다. <초등부 교사>

특 선

□서 한 문□

교회 종소리

남 6-1 마 동 훈

서독에서 온 소식

김 영 한

어느 주일이었다. 그날도 교회의 종소리는 나의 귀를 울리는데 어쩐지 발길이 얼른 내키지 않았다. 다른 때에는 언제나 형과 함께 뛰어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날은 축구 구경의 재미가 나의 마음을 꼭 쥐고 있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부르며 예배보는 것보다는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구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땡! 땡! 땡……”

그러나 예배당쪽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마치 “동훈아! 빨리 와서 참석해야지.” 하는 듯이.

나는 드디어 종이쪽지의 양면에 한쪽은 「교회」 한쪽은 「축구」라고 써서 던지는 방법을 택했다. 엉뚱한 일이었다. 나는 종이쪽지를 방 한 가운데로 던졌다. 그 종이쪽지는 이리 날고 저리 날다가 마침내 방바닥에 떨어졌다. 무엇일까? 「축구」, 축구였다. 나는 무척 기뻐다. 그리하여 나는 텔레비전을 켰다. 재미있는 축구는 벌써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한 주일, 나에게는 실로 피로운 7일간이었다. 교회에 가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울 줄을 몰랐다.

다음 주일날, 나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걸음으로 교회를 향하여 걸었다. 마침 그날은 선생님이 절근하셔서 꾸중은 듣지 않았지만 마음이 탁 트이지 못했다.

다시 한 주일이 지나서, 나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며 교회로 갔다. 그 주일은 선생님께서도 나오셨다.

“선생님! 저… 이제 결석을 다시는 하지 않겠어요.”

“뭘, 나도 하루 구워먹었는데… 자,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교회에 열심히 나오기로 약속하자!”

시원스런 선생님의 말씀에, 나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부터 나는 결석하는 날이란 없게 되었다. 교회 종소리 곧 하나님의 종소리를 들으며 주일마다 씩씩하게 교회에 나가게 된다.

* 위 글은, 지난 겨울에 원어성경학교 제 7회 글짓기 대회에서 영예의 1위 「특선」에 뽑힌 글이다. 마 동훈 군은 초등학교 어린이회 부회장이며, 서울대사대부국 전교어린이회 회장이기도 하다. <편집자 붙임>

존경하는 목사 김창인 목사님!

나의 사랑하는 충현교회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과 함께하신 살아 계신 능력의 주님께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이 죄인에게도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2년 가까운 오늘까지 저의 학문적 연구가 많이 진전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그간 깊은 연단의 기회가 있었는데, 저의 신앙을 사수하기 위하여 이곳 하이델베르그에서 박사학위를 포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학위를 포기하고 한국 교회의 풍토에 입각한 신학형성의 기초로서 저의 철학적 훈련을 계속하고, 이곳 신학과에서 Luther 및 K.Barth 사상을 중심으로 현대 자유주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리라고 하신 신명기 28장의 언약을 그대로 믿고 약속을 성취시키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영원불변하시고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매주 저녁에는 한국 간호원들을 중심으로 성경연구회를 인도하고 있고 이곳 하이델베르그대학의 학생들에게 특히 외국 학생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 없는 학문이나 지식은 죽은 것이요 주님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고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에 비하여 유럽의 교회들은 진실로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리라는 신념을 굳게 가집니다. 우리 충현교회와 한국 교회가 양분만이 아니라 그 질에 있어서도 능력이 넘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리라 믿는 것입니다.

「충현」지는 아직도 발행되고 있는지요? 만약 「충현」지를 이곳에서 받아볼 수 있다면 이곳 간호원들에게도 영적인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진실로 살아 있는 설교의 말씀을 전하기는 세례요한과 선지자 예레미야, 나단, 미가, 다니엘등과 같이 자신의 헌신과 회생을 주님의 말씀 증거를 위하여 마치는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지는 자세에서만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매일 끝고다에까지 가려는 행동이 저에게 주어진 과제라 느낍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저를 위하여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충현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에서>

□ 서면 인터뷰 □

새 교육관 건축에 대하여

편 집 부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는 천국 일꾼의 양성이 불가피하며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 영광물리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에 정성을 쏟아오기 어언 10년이 되었다. 특히 부흥일로를 달려 온 주일.....〉
 〈.....학교는 양적인 팽창에 따르는 질적인 향상 문제와 아울러 교육장소의 협소 문제는.....〉
 〈.....가장 시급한 현안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교육관 증축은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해결되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주님이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였다. 건축위원장 위영환 장로님을 통하여 곧 착공.....〉
 〈.....하게 될 교육관 청사진을 펼쳐고 그에 대한 이모 저모를 들여보기로 한다.〉

<표 2>

연도	구분	중 등 부	고 등 부	대학 청년부
68, 6, 17		294명(100%)	195명(100%)	60명(100%)
73, 4, 1		356명(121%)	298명(153%)	대학 126명 청년 87명 (355%)

1. 교육관은 왜 세움니까?

① 1963년 본교회 설립 10주년에 즈음하여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 아래 일꾼 키우는 일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다.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그대로 한국 교회의 당면한 문제는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꼭같이 신앙의 인재를 양육하는 일이 시급함을 통감하여 본교회는 1961년 9월 28일 현재의 별관을 신축하여 주로 주일학교 교육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다.

② 당회에서 위촉된 교육위원회의 지도 아래 주교는 체제를 조직화하고 기능을 강화시켜 1962년에는 5부로, 68년에는 7부로, 현재는 10부로 확대하여 인재 육성과 개발에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③ 주교 각부는 전임 교역자를 배치하고 부장이하 여러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성경연구, 학원과 청소년층에 대한 전도활동, 그리고 각부에 상응한 신앙운동에 집중적인 노력으로 교세는 부흥 일로에 있다.

그간의 발전 추세를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연도별 출석수와 증가비율 <표 1>

연도	구분	유년	중, 고등	청년
61, 9, 28 (별관 전축당시)		360명(100%)	145명(100%)	1956, 1, 15 26명(100%)
62, 12, 16		706명(196%)	199명(137%)	
68, 6, 17		766명(212%)	489명(337%)	60명(231%)
73, 4, 1		750명(208%)	654명(451%)	213명(819%)

특히 68년부터 73년에 이르는 동안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의 증가는 현저함을 알 수 있다(표2 참조).

④ 증가 일로에 있는 주교 각부는 각 교실마다 입추의 여지가 없고 2, 3부씩 교재로 사용하는 등 일시적인 방책을 쓰고 있으나 이제는 하

계점에 이르렀고 더 나은 교육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현상태로서는 시설면으로나 보전면으로나 또는 안전보장면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장애가 있음을 인정, 교회는 설립 20주년 기념과 연관성을 가지고 교육관 건축을 결정, 위치는 본 예배당 서편의 현 사택을 전부 철거하고 후면은 본관과 붙여 교육관을 신축하고 전면은 광장으로 개방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관에는 주교 교실은 물론 대예배실의 확장, 종합사무실, 교역자실, 당회실을 설치하고 또 교역자 사택을 부설하는 등 다용도(多用途) 건물로 계획 설계하고 있다.

2. 새 교육관은 어떻게 설계되었습니까?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설계약도 참조)

① 구조: 지상 5층 지하 1층의 철근콘크리트 건물 1동

② 용도: 교육관 및 부속실

③ 면적(단위 평)

지하층—70.9 1층—85.0
 2층—85.0 3층—65.4
 4층—85.0 5층—85.0
 옥상—10.0 총면적—486.3

④ 배치내역(단위 평)

지하층—당회실(29.5), 참교(7.7)

1층—교역자실(15), 종합사무실(15), 사택사택(13.5)

2층—대예배실(28), 모자예배실(11.4), 성

- 가대석(6.06), 목사사택(24.4)
 3 층—대예배실(19.7), 사무실(6.06), 전도
 사사택 2가구(24.4)
 4 층—고등부실(58.9)
 5 층—중등부실(63.6)
 옥상—물탱크, 창고(10.0)
 ⑤ 건물높이 : 지하 3.10m, 지상 17.40m
 ⑥ 전기, 난방, 위생설비 갖추
 ⑦ 소방법에 의한 시설 갖추
 ⑧ 기타 기구와 비품 갖추

3. 교육관 신축에 대한 준비와 진행상황은 어떤
 가요?

- ① 현재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위원이 있
 고 부서를 전담시키며 공사 진도에 따라 위원을
 보강하여 건축위원회를 강화할 것이다.
 ② 공사비 : 개략 4천만원
 ③ 허가출원 : 4월 20일~30일
 ④ 기존건물 구조진단 : 4월 말~5월(보강설계
 와 시공)
 ⑤ 철거공사 : 4월 말~5월 초(현 사택과 예배당
 벽부분)
 ⑥ 공사 : 5월 1일 착수, 9월 30일 준공
 ⑦ 준공검사 : 9월 말

4. 완공후의 운영방안은 어떤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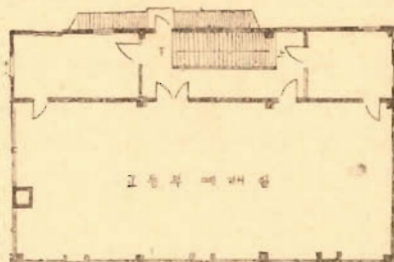
- ① 대예배실(2,3층)을 확장하고 모자 예배실을
 특설하며 성가대석등 총382석을 확보한다. 따라
 서 대예배실은 총 1,500석이 확보되는 것이다.
 ② 주교 교실을 전면 조정하여 교육관 4층에
 고등부 330석, 5층에 중등부 464석과 1층에 중
 합사무실이 마련되었다. 현 별관과 예배당 하층
 에 여타 주교 각부와 지도자양성부를 알맞게 배
 치하고 주교 각부에는 교육용 시설, 비품, 도서
 실 등을 마련하여 환경을 조화시킨다.
 ③ 1층에는 교역자실을 지하층에는 당회실을
 설치한다.
 ④ 교육관에 교역자 사택을 부설하는데 1층은
 사찰택 2층은 목사 사택을 두며 3층은 여전도사
 사택 2가구를 둔다.
 ⑤ 교육관 전년의 광장은 130여명으로 동편광
 장과 같이 휴게, 각종 행사, 운동등에 활용한다

5. 교회 앞에 부탁하는 말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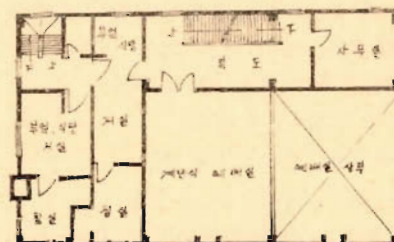
몰된 교회의 부흥과 천국 일꾼을 키우려는 원
 대한 포부 아래 교육관이 곧 착공될 즈음하여 바
 라기는 온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합심 기도하
 시고 또 물질 양면으로 협력 봉사하여 금년 가
 을의 교회설립 20주년 기념식 때는 훌륭하게 개
 량되고 또 균형있게 자리잡힌 본 교회당의 모습
 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원하여
 마지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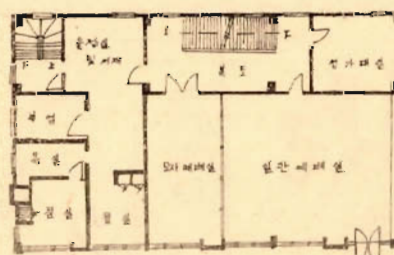
▲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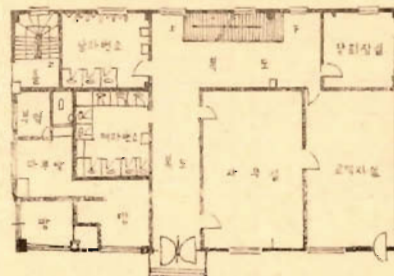
▲ 4층 평면도



▲ 3층 평면도



▲ 2층 평면도



▲ 1층 평면도

※ 지하층—당회실, 창고, 보일러실.

<여성 수필>

찬송가에 대한 이해

이 성 실

찬송가라고 하면 예배의식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쉬웠던 나였다. 그러기에 어린 학생때는 곡이나 취미에 맞고 부르기에 멋이 있는 명곡을 불러야만 뽐도 내고 어떤 긍지를 가지기도 했으며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는 높여서 목소리가 다 쇠퇴한 노인들이나 흥얼거리는 노래 정도로 인식하고 있던 어리석은 나였다. 물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할 찬송가를 잘못 인식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양성부 교회음악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며 선생님의 말씀과 같이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못 부르는 것이라고 나는 이 말씀을 이번 기회를 통해 깊이 깨달은 바 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미련하게 잔구했던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 은혜에 물론 감사하는 기도와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지만 입을 벌려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송을 별로 부르지 않았다. 이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을 반성해 본다. 왜 나는 찬송을 잘 부르지 않는가 라고.....

교회음악 시간에 젊은 선생께서 기쁨이 넘치는 찬송과 성령이 충만해서 석석하게 찬송을 부르시는 것을 볼 때 짧은 시간이나마 나는 나의 찬송하지 않는 생활을 거울로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두워만 보인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에는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 입에서 찬송이 쉬지 않는 것이다.

내가 기쁨이 충만해서 참 열심히 불러본 때는 어느 부흥집회 때에 몇번 경험에 있었다고 기억된다. 그것은 한때나마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해 있었기에 그러한 찬송을 불렀다고 생각할 때 역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생활할 때만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힘있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는 듣는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 상달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찬송가라고 하면 나를 위로하는 것으로 그쳤으나 이번 교회음악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는 찬송가 중에서도 hymn(찬송가)을 많이 불러야겠으며 또 저절로 부를 수 있도록 참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지도자 양성부 3기>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대접할 게 있어야지요. 오신 김에 막걸리라도 한잔 하고 가세요.” 술상을 마루에 내려 놓고는 커다란 사기 그릇에다 금례 어머니는 술을 따르려고 하였다.

“엄마, 교회 선생님은 술을 안잡수신대요, 선생님에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먹는 일처럼 좋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모처럼 선생님을 대접한다는게 도리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부끄럽고도 미안해 하는 눈빛으로 나를 힐끔힐끔 보며 엄마의 팔을 붙들던 금례의 얼굴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벌써 수년 전인 군복무 시절의 이야기이다. 입대하기 전에 충현제단에서 쌓은 교사의 경험을 십분 살리어 3년간 봉사하였던 군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 집에 심방을 갔을 때의 일인 것이다. 미약한 힘이나마 주님을 위하여 정성을 쏟으니 10여명 밖에 안되던 학생들이 오래지 않아 30여명으로 늘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산으로 둘러싸여 하늘만 손바닥 만큼 올려다 보이는 전선에서도 주일이 되면 어린이들이 영내에 있는 군인 교회에 찾아와 찬송하며 또는 서로들 재잘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는 두고 온 고향의 사랑스러운 동생들이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대하는 듯하여 함께 일하던 몇몇 동료들은 무척 기뻐하기도 하였고 향수에 젖어 보기도 하였다. 규율에 매인 병영생활 중에서도 이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때때로 학교로 오가는 길에 “선생님!”하고 손을 흔들며 활짝 웃어 보이던 이들에게서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시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 8월 17일 복음의 귀한 피를 흘리며 황해도 황주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린지 어언 백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나의 조국 이 강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하며 들여보지도 못한 금례 엄마와 같은 분이 많으리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부활절과 나

이 묵

세상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렇지만 신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는 오로지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 자신도 올바른 성도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반문하여 보게 된다.

□일선교사 수필□

탕 감

서 동 석

「선생님이 떠나신 후에는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없어요. 군종과에 있는 아저씨들은 맨날 우리가 가면 귀찮다고 이야기도 잘 안해 주어서 이제는 가기가 싫어요. 민간인 교회가 가까우면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어요.」하는 정열이의 편지를 받고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였는지 모른다. 제대와 함께 그곳을 떠나 오던 마지막 날 꼬마들이 주르르 몰려와 나의 소매를 움켜잡고 애원을 하듯이 “선생님! 가지 마세요, 선생님은 하사니까 제대하시지 말고 우리와 같이 지내요, 네?” 하며 눈시울을 적시던 백지와 같은 이들에게 어설픈 그림을 그려놓고 떠나 온 듯하여 지금도 몹시 가슴이 아프다.

생각하기는 충현의 젊은이 중에도 장차 군에 입대하여 나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될 경우가 분명히 있으리라 믿는다. 아직까지도 이 땅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골짜기가 많으리라 생각되어진다. 행여나 이러한 골짜기에 보내심을 받거든 주님의 귀한 뜻으로 알아 후회 없는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밝게 비추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확실하게 완성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제 미급하였던 나의 지난 날을 탕감받는 길은 오늘 나에게 부탁하신 여자 4학년 6반 어린이들에게 나의 온 정성과 힘을 쏟는 길일 것이다. 제대의 날이 나에게도 임박해 오는 것을 점질 확실게는 꺼며……

<초등부 교사>

바울 선생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빌 3:10) 하신 말씀과 같이 부활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젊음이 되기를 소원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더욱 새로운 자세 즉 자신이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도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진실되게 참되게 살아야 된다는 진리를 자신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다. 아마 부활절의 큰 진리와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청년부 회원>

□ 성년 총현에 보인다 □

성년 총현 신자의 시대적 사명

석 정 훈 집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디옥교회는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맨처음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해외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인 것이다. 스베반 사건으로 인해 사방에 흩어진 평신도들이 다 전도인이 되었다. 이러한 평신도 전도인들의 전도로 이루어진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고 후에는 바울이 가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였을 지라도 최초의 평신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오늘의 교회도 또한 이와 꼭 같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다 하여도 수많은 평신도들이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지 못한다면 교회는 부흥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실로 교회에 있어 신자의 사명은 중대한 것이며 이 사명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먼저 소금의 직분을 다하자고 말하고 싶다. 우리의 주위환경이 날이 갈라지고 변화되어도 우리는 변할 줄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세상을 변화시키어야 할 우리가 도리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정조를 잃은 사람처럼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로마는 250여년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다. 끓는 기름가마에 넣어 죽이거나 가축을 벗겨 죽이거나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로마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앙의 맛을 잃지 않았으며 도리어 대

대로 저들의 자손에게 참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어 주었다. 그러기에 로마는 멸망하였으나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산위의 성과 같은 직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뚝 솟아 있는 성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모든 것이 드러나 있으며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되는 것이 신자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우리를 향하여 참 인간으로서의 좋은 본이 될 것을 이 사회가, 아니 이 민족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시대적인 주시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드러내어 보이고 있는가?

끝으로 우리는 빛의 책임을 다하여야 될 것이다. 손을 벌리고 있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두운 이 땅에 비칠 때에 슬픔과 눈물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빛이 되고 절망중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빛과 생명의 빛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빛된 우리가 되려면 먼저 우리의 생활에 어둠이 없어야 하겠고 도리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것이다.

금년으로 총현 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이제는 성년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여야 할 때가 이른 것이다. 성년 총현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는 맛을 잃지 않는 한결 같은 맛 있는 소금으로 세상에 거리낌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빛을 발하며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두운 세상여, 빛을 따르라!”

<중등부 부감>

부활절과 나

송 순 일 장로

죽고 못산다는 말과 죽으면 살리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인간이 죄를 가지고 죽으면 육신도 영혼도 마음도 다 죽고 못산다는 말일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영원히 살리라는 말일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것은 확실하지만 실제의 생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죽지 않으려고 하며 예수님의 부활도 내 영원한 부활로 여기지 않으려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나는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승리의 기쁨은 그 무엇에 비길데 없지만 한편 나의 부족함을 금치 못한다. 즉 우리 주님은 나 위하여 고난받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나는 주님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피하고 부활의 영광 속에서 항상 살지 못하는 그것이다.

<초등부 부장>

□ 부모님주일을 맞아 □

□ 부모님주일을 맞아 □

아들이 어머니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박 형 곤 집사

고 경 자

저는 가끔 우리 육신의 조상이 되는데벤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합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이들에게 자식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와 같은 돈독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다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범죄를 함으로 후손들에게 원죄의 멍에를 메워주지는 않았겠지요?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 것은 지워 버릴 수 없는 옛 일들을 돌이켜 볼 때 가슴이 매어짐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철부지 시절에 종아리를 걸어 올리고 맞던 회초리의 따가운 맛이 아직도 제 신경속 어디엔가 남아있고, 빨갛게 부풀었던 회초리의 자국도 종아리속 깊숙한 곳에 남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들 귀여운 줄만 알고 이웃집 물건을 훔쳐온 자식을 잘한다 칭찬만 해 주시던 어머니의 우직한 사랑이 종말에는 그 아들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는 슬픔을 낳게 하였다는 옛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재미있게 들던 일이 어제 일만 같았는데 벌써 거울에 비춰지는 제 모습에서 철머리카락이 세이거 어려움을 볼 때 오랜 세월이 흘러 낙엽만큼이나 많이 쌓여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못난 아들을 위하여 예나 지금이나 한결 같이 눈물의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어찌 이 아들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에 찾아볼 수 있었겠습니까? 어릴 때에는 그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 정도라면 생각되던 선한 목자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가 이제는 교회에 나아가 새벽 제단에 머리숙인 모든 어머니를 볼 때마다 저분들의 자녀들도 축복받은 자녀임에 틀림없다고 확신합니다.

김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호도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좋은 열매가 호도에 근본을 두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겠지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머니께 불효했었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만분의 하나라도 흠족하게 해드린 적이 있었을까 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철 늦게 찾아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버이를 모신 모든 중현의 식구들과 다음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중등부 교사>

아카시아 피는 오월이면 어린이주일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주일이 있고…… 오월은 축복받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처음 뵈는 것은, 아빠와 저녁 산책을 나서던 길에서였습니다. 그 날이 마침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교회를 가시는 길이라며 큼직한 가방을 들고 계셨습니다. 아마 두툼한 신구약 성경책과 찬송이 들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빠를 통해서 인자한 분이란 애길 들어 왔던 터였는데 막상 마주하고서 그렇게도 어려웠기만 했던지… 지금 생각하니 까마득한 옛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으로 모시고 8년. 신희 초에 단 한번의 큰 주지람을 야속해 했던 일도 있지만, 그 보다는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딸아들 은호가 태어나던 눈 내리던 겨울날에, 「선·망·애」라 새긴 성경책 모양의 금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시며 화안하게 웃으시던 일, 둘째 은준, 셋째 은석이 태어날 때도 똑같은 사랑으로 기쁨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조그맣고 빨간 꼭 장난감 같은 차를 마련했을 때에 언제 익히 두셨던지 우리들 다섯 식구를 싣고 익숙한 승지로 온 거리를 달리시던 일……. 우리는 그 때 참으로 행복했었습니다.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회갑을 맞으셨습니다. 지난 3월 17일 교회에서 김 창인 목사님 주례로 회갑 축하 예배를 가졌습니다. 아직도 아버님은 회갑 연세답지 않게 젊음과 멋을 지니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도 성가대석에 앉아 회갑기념으로 바쳐진 하몬드 오르간 너머로 장로님석에 앉아 계신 아버님을 봅니다.

그리고 삼층 맨 앞에 앉은 아빠도 봅니다. 우리 다섯 식구에게 다시 없는 좋은 아빠를 주신 고마움을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아버지께 돌리고 싶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은은한 오르간 소리가 있는 이 교회 안, 그 속에서 난 누구 못지 않은 사랑과 감사를 느낍니다.

부디 오래 사시고 여생이 더욱 우리에게 자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성성가대 대원>

* 교회 뉴스 *

□ 부활절 연합예배

영원히 사랑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광과 승리의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부활절 연합예배가 오늘(4월 22일) 새벽 5시부터 남산 야외 음악당에서 있었다.

시내 2,300여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주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께 더욱 감사의 찬송을 드높이 거니와 특별히 본교회 당회장이신 김창인 목사님을 복음의 선포자로써 세워주시자 새벽 미명에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삼천리 이 강산에 선포하게 하심을 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드리어야 할 것이다.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가 주최한 이 예배에는 기독교중앙방송국, 중앙방송국, 서울중앙방송국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전파를 타고 중계되었으며 기독교보, 교회연합신보 등이 이를 취재 보도하였다.

□ 춘기 성례식

지나 주(4월 15일) 1부와 2부 예배 때에 금년도 춘기성례식이 있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당회장 김창인 목사가 집례하여 1,900여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었다.

□ 심령부흥회

본교회 춘계 심령부흥성회가 지난 3월 26일부터 31일 새벽까지 6일간 본교회에서 있었다. 대구 서문교회의 이성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는 이번 부흥회는 교회 내의적으로 우리 교회가 당면한 큰 문제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큰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중대한 성회였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시기적 요구에 적합하게 들은 성회에서는 주로 성도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와 갖추어야 할 요

건에 대한 말씀의 선포였으며 저녁 집회 뿐만이 아니라, 새벽과 낮 집회에 연인원 일만일천여명이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다.

□ 연합여전도회장에 이옥순 권사 피선

수도노회 연합회 여전도회가 시내 후암교회에서 지난 4월 10일에 있었다.

이 자리에서 본교회 이옥순 권사는 연합회 회장의 증임을 맡게 되었다. 또한 구명선 집사도 시기의 책임을 맡았는데 임기는 2년으로서 앞으로 신임 회장에 대하여 본교회 여전도회 뿐만이 아니라 수도노회 산하 모든 덕린도회가 앞으로의 보다 큰 진전을 기대할 것이다.

이어서 있는 이날 특별순서로 전도사 전장을 암송하는 성경암송대회도 베풀어졌는데 본교회 여전도회에서는 3명의 회원이 출전하여 박선자 집사가 3등에 입상하였다.

□ 학습세례 문답식

4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학습 및 세례 문답식이 있었다.

이번 문답식에는 총 282명(남 120여 162)이 참여하였는데 학습자 144명(남 82, 여 62), 세례자 89명(남 28, 여 61), 유아세례 33명(남 19, 여 14), 입교 17명(남 11, 여 9)이었다.

□ 교육관 위한 특별헌금

급증하는 주교생들에 대한 교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당회에서는 본관 서편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총 건평 486.3평의 교육관을 신축하기로 하고 지난 3월 18일 이를 위한 특별헌금 순서가 있었다.

4,000여만원의 소요공사비에 비하여 상당수의 금액이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사립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에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써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합심,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절실하다 하였다.

□ 장년부 성경퀴즈대회

장년부는 73년도 상반기 행사 중

하나로 4월 8일 장년부 성경공부 시간을 통하여 개인 및 구역 대항으로 로마서에 대한 성경퀴즈대회가 있었다.

이 대회에서 서구구역이 영예의 1등으로 수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찬송가경연대회나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모든 장년은 장년부에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 양성부 5기 개강

4월 15일 1부예배 후에 12시부터 지도자 양성부 제 5기가 개강되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바람직한 신앙의 지도자로서의 명신도에 대한 훈련을 목적으로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으며 수강기간은 6개월로 현재 120여명의 제 4기생들이 3개월째 강의를 받고 있다.

□ 중·고등 신앙부흥회

장래 교회의 역군이요 이 민족의 소망인 70여 중·고등부 학생들의 춘기 신앙부흥회가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나흘간 본교회에서 있었다.

본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아름다운 일생을 살려만—내 얼굴은—내 눈물은—내 입은—」이라는 제목으로 능력 있고도 뜨거운 말씀의 증거가 있었다.

부흥회에 참석한 학생, 교사 한 것 없이 모두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더욱 더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 10부합동 교사친교회

주일학교 10부 합동 교사친교회가 지난 4월 5일 기독교수양관(불광동)에서 있었다.

개회예배에 이어 있는 하루의 다채로운 친교 시간에는 180여명의 각부 교사들이 3개 연대로 편성되어 각 연대는 전투대대를 투입하여 치열한 일대 공방전을 벌였는데 3파전이라 하여 따라서는 적군이 후군으로 돌변하는 기이한 전쟁을 하여 친교를 더욱 두터이하였다.

이 날의 패권은 초등, 유치부의 배속연대가 잡았는데 3개 연대가 공히 마귀의 군사와 싸워 승리 이길 수 있으리라는 것이 자신들의 한결 같은 평.

□ 양성부 3기생 도서 기증

지난 3월 18일 수료한 지도자양성부의 제3기생 일들은 수료기념으로 44권의 도서를 양성부에 기증하였다.

한편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도 20여권의 종교서적을 양성부에 기증하였는데 이 도서는 양성부를 비롯하여 전 교인들에게 대여하고 있다고 하며 많은 교인들의 이용을 바란다고 한다.

□ 경로회 예정

청년부가 연례적인 행사의 하나로 가지는 경로회가 오는 5월 26일 본교회 유년부실에서 열릴 것이라 한다.

젊은이들의 경로심을 고취시키며 생활가운데 실천하고 아울러 본교회 교인으로써 70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하여 마련된 이날의 위로회에 한분도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 구역의 권찰들은 청년부와 긴밀한 협조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고 한다.

□ 합동 전도세미나

고등부와 대학부의 합동 전도세미나가 지난 4월 8일 오후 대학부실에서 있었다.

전도에 사명감을 느낀 7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 열을 올렸는데 노의일 전도사와 최우권 선생의 주재 발표가 있을 후 전도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4월 15일에는 역시 고등부와 대학부가 합동으로 남산공원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 성경고사대회 열어

초등부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매일 성경읽는 것을 생활화하고 또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3월 18일 오후에 본당에서 성경고사대회를 열었다.

여호수아시 전장에서 출제된 이날의 고사대회에는 초등부 각 학급에서 출전한 150여명의 어린이들로 성황을 이루었는데 더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하여 시험 몇주 전부터 자반 담임의 지도를 받아 온 모든 어린이들은 모두가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교회 뉴우스

□ 중등부 합창 1등

지난 4월 7일 시내 왕십리 교회에서 있는 수도 노회 주회 제1회 중등부 성가경연대회에서 본교회 중등부 성가대는 1등을 하였다.

또한 이날에 있는 독창부에서는 홍희숙 양이 1등을 하여 한층「중현」의 이름을 빛내 주었다.

□ 학교전도를 위한 모임

중등부는 지난 4월 8일 중등부실에서 각 학교별 대의원들과 각반의 반장들이 모여 앞으로 학교전도 및 여러가지 학교별 활동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

아울러 과거 목요회 사업도 이 자리에서 추진되었는데 학생들의 학교전도가 주목되며 이에 대한 교회의 적절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하였다.

□ 고등부 임원수련회

고등부의 보다 나은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고등부 임원들에 대한 수련회가 지난 2월 26일, 27일 양일간 있었다.

각부 임원들이 담당부서의 업무 목적과 임무수행 요령을 교육받았으며 또한 임원들로서의 모범된 신앙생활에 대한 교육도 있었다고 한다.

□ 자체 지도자교육 실시

새신자부는 새 신자들의 지도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자결향상을 위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본교회서 자체 지도자교육을 실시하였다.

새신자부 교사는 물론 중·고등부 교사 다수가 참석한 이 모임에 연인원 12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새신자부 지도인 노의일 전도사의 새 신자에 대한 이해, 실리, 교육 및 육성을 위한 조직과 관리의 강의를 교육 내용이었다.

앞으로 연 1회씩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리라고 하는데 바라기는 평신도 지도자 모두가 이러한 교육에 참가하여 새 신자 취급의 큰 자질을 갖춘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는 부흥의 힘이 될 것이다.

□ 새 지도자 맞아

지난 3월 유년부는 이종영 전도사를 부지도자로 맞이하였다.

시내 용산에 있는 원동교회에서 자라 그 교회의 교육 전도사로 고등부를 지도하던 이 전도사는 현재 총회신학대학 신학연구원 졸업반이며, 이대 법대를 졸업하고 총회신학대학교 신학부를 졸업한 부인은 현재 가정법률상담소(소장 이태영 박사) 간사이며 또한 성도교회의 중등부 지도자로 수고하고 있다고 한다.

□ 출판 기념회

본교회 청년성가대 지휘자인 장신의 집사의 「소년 소녀 합창지도법」 출판기념회가 지난 2월 17일 Y.W.C.A.에서 있었다. 연대 교육대학원 동문회가 주선한 이 기념식은 다수의 축하객이 모였는데 소년소녀에 대한 합창지도의 전문서적이 출판되기는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 지도자양성부 특강

지난 2월 25일 2부예배 후 유년부실에서는「장로교인이 믿는 교리」라는 제목의 양성부 특강이 있었다 200여명의 3,4기생들과 관심있는 성도들이 강의에 참석하여 열심히 귀를 기울였는데 강사는 신복을 복사로서 짧은 시간에 쉽고도 조리있게 강의를 하여 장로교 교리 이해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여전도사 새로 오셔

지난 3월 본교회는 또 한분의 여전도사를 모셨다. 새로 오신 강봉선 전도사님은 총회신학대학을 나오셨으며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용산남부교회에서 시무하셨다고 한다.

□ 토막 뉴우스 □

- ▲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 새교육관 신축관계로 사택을 지난 3월에 이전.
- ▲ 대학부 체육대회가 5월 19일 오후 2시부터 한영중학교에서 열릴 예정.
- ▲ 청년부 전임회장 김정일 집사의 도미로 후임에 김인석씨 선출.

부활은 새로이 사는 것입니다

김 영 숙

시간이 순간의 연속이듯이 생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그 이면에 많은 기쁨을 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끼게 하며 소망을 크게만 합니다. 또 그 고통으로 육적인 자기가 매번 죽어감으로써 날로 새로와집니다.

이 고통은 예수님의 부활에도 필요하였읍니다. 십자가상의 고통이 그것이었고 음부까지 내려가심이 그것입니다.

이제 가린 눈을 뜨고 병어리워있던 입을 열어 순간의 부활을 맛봅니다.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이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인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대학부 회원>

□ 원 고 모 집 □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충현」지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합니다.

다 음

종류: 신앙간증, 수필, 시, 성도의 교제나 교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매수: 200자 원고지 5매나 10매정도

기간: 수시

제출할 곳: 「충현」투고함이나 교육1부 사무실

※ 주의: 한글로 쓰시되 외국어를 필요로 할 때는 괄호 안에 써 넣으십시오.

<사 설>

교회 성장의 비결

참되고 생명력있는 교회 성장의 비결은 교회 성원(교인)의 회생을 전제로 한 봉사와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 이 두가지 비결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제는 우리의 관여할 바 못 되므로 거론할 수 없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람직하게 키우기 위하여 주님이 앞서 본을 보여준 것 귀감삼아 절대적 회생과 봉사의 일념으로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성장이 정지되면 노쇠가 있을 뿐이고 전진의 발걸음이 멈추면 후퇴가 있을 뿐이다.

혹자는 우리 교회가 이만하면 초대형 교회에 속하니 현상유지만으로 족하지 않느냐 라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다. 천국은 가루 시말에 가져다 넣은 누룩과 같다고. 이 말씀은 교회의 끝없는, 절대적 성장의 의무와 속성을 밝힌 말씀이려니 어찌 존신들 자족과 안일의 유혹에 빠져 교회의 노쇠와 후퇴현상을 나타내겠는가? 따라서 충현의 성장을 위하여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할찌니 교역자는 전폭적이고 무조건적인 헌신의 제물이 되고 평교인은 삶의 전부를 바치지 못함을 아쉬워하며 자신의 생명과 소유 중에서 가능한 최고 지선의 부분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감사함으로 바쳐 회생과 봉사의 밑거름이 될 때 충현의 성장은 정녕 힘있게 지속되고 이 어둠의 세대를 비치는 구원의 밝은 산성이 될 것이다.

편 집 하 고 나 서

◆ :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생명의 승리를 노래하는 우렁찬 멜로디가 온 천지에 울려 퍼질 부활의 아침이 기다려진다. 바울 사도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 : 아름답고 웅장한 대성전 건축이라 는 우리의 열원에 앞서 현재의 교육관으로는 급증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실문제부터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온 교회가 현급하고 계속 기도하며 힘쓰고 있다.

◇ : 자연 이번 호에는, 부활절과 우리 충현의 당면 과제인 새 교육관 관계 기사에 지면을 할애하였다. 앞으로 우리의 선교지 인도네시아에 대한 현지 소식을 계속 실으려 한다. 그곳 사정을 잘 알아야, 교우들의 관심과 협조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리라 여 기기 때문이다.

충현지를 위해 일하는 이들

편집위원... 윤종순 장로(대표)

최희석 주 장로
이동규 전 도사
홍종만 전 도사
노은일 집사
정현근 집사
김성권 전 생
한근옥 전 생
한신생

신우경
신생
신생
신생
신생
신생
신생